

英語統辭變化 研究 方法論 考

—Lightfoot의 理論을 중심으로

김 인 숙

0. Lightfoot의 *Principles of Diachronic Syntax*(1979: 이하 PDS로 부르겠음)가 나오자 곧 그의 문법이론은 생성이론의 내외로 부터 비판을 받았다. Bennett(1980), Romaine(1981), Fischer and Leek(1981) 등이 그 중요한 비판자들이었다. 본고에서는 이들이 지적하고 있는 Lightfoot(1979)의 문제점들을 살피고, 영어통사변화를 설득력있게 설명하는 L의 방법론과 이론적 기반이 무엇인가를 알아 본다.

제 1 절에서는 Lightfoot이론의 기본 가설과 문법이론을 요약하고, 제2~4절에서는 Bennett, Romaine, Fischer and Leek가 각각 지적하고 있는 Lightfoot의 문제점들을 알아 보고, 제 5 절에서는 이들 비판에 대하여 Lightfoot의 문법이론과 방법론의 타당성을 옹호 하기로 한다.

1. 먼저 Lightfoot의 이론의 기본 가설에서 부터 시작하기로 한다. 인간은 인지체계의 일부로 각자 자기의 문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의 하나이다. 문법은 인간의 내재적 언어지식을 구체적으로 형식화시켜 준다. 문법은 개인에 따라 여러 형태로 각기 다르게 나타나지만, 언어습득세대가 언어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그들이 직면하는 문법은 형태를 갖춘 어느 정도 성숙된 것으로 그들 앞에 나타난다.

한편 어른들은 그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는 그들이 어렸을때 접했던 언어환경에 현재(顯在)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 바로 그 과거의 언어환경은 어쩌다 우연한 상황에서 말해졌거나 듣게 되었던, 문장이 된 것 또는 문장이 않된 것들로 뒤범벅이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그들은 어떤 문장들은 뜻이 모호하고, 어떤 것들은 있을 수 있는 가능한 문장들이고, 또 어떤 것들은 비문법적인 문장들이라는 것을 차차 알게 된다. 이 초기의 경험과 뒤에 와서 터득하게 되는 성숙한 언어체계간의 괴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법이론(또는 보편문법 : UG)을 가정하게 되는데, 이 문법이론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유전적/내재적 능력의 일부를 해명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우리가 가정하는 문법이론 또는 문법원리들은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유전적 능력을 토대로 그 후 성숙된 문법을 갖추게된 경위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의 현재의 언어지식에 도달 하게된 경위를 보여 주기 위해서는 그의 유전적 능력(genetic endowment), 재분석을 유발케하는 격발경험(trigger experience)¹⁾, 그 후의 성숙한 문법(mature grammar)을 기술해야 한다. 이상은 Lightfoot이론의 시발점이며 PDS의 심리적 토대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Lightfoot가 PDS에서 전개하고 있는 문법이론을 살펴 보기로 한다. L은 영어 통사변화를 다루는 이론으로 확대표준이론(Extended Standard Theory)의 모델을 원용하고

1) See Lightfoot(1981:352; 1982:150-1, 162-3)

있으며, 그의 이론은 변화이론(a theory of change)이 아닌 문법이론(a theory of grammar)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L의 문법이론에 따르면, 앞에서 언급한대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언어가 지니고 있는 언어지식을 유전적으로 부여받으며,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오랜 세월을 두고 변질되어온 부족한 언어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법이론에 그의 투명성원리(Transparency Principle: 이하 TP로 부르겠음)가 들어 있으며²⁾, 이 원리는 파생/도출에서 비롯되는 복잡성의 한계를 규정한다. 다시 말해서 TP에는 파생이 최소로 복잡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변화는 일부 우발적인 요인에도 기인하지만, 만약 변화의 수요가 누적되어 TP를 위배할 정도에 이르면 이 원리를 가지고 태어난 언어습득세대는 언어자료를 재분석하여 불투명(opacity)을 제거하기에 이른다는 것이다.

재분석은 실제 표면구조상의 변화가 아니고, 다만 구조기술상의 변화일 뿐이다. L에 의하면, 역사적 언어개신(linguistic innovation)의 중심은 언어습득에 있다고 보며, 언어변화를 설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체는 언어습득세대가 부딪치는 문장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문장을 만들어 내는 직관이다. 가능할대로 간단한 문법을 찾아냄에 있어서 언어습득세대는 국부적으로 불투명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지금까지 사용해 온 어른들의 모델과는 다른 문법을 만들어 낸다.

문법의 기능은 예방보다는 치유에 있다는 L의 견해를 받아 들인다면, 이같은 재분석은 문법의 다른 부위에 예기치 않은 혼란을 야기할 것이고, 이것이 이번에는 뒷세대에게 또 다른 재분석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문법이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급격히 변할 수도 있음을 뜻하며,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변화들에 대한 유일한 제약은 재분석의 결과로 비롯되는 문법은 문법이론이 과하는 요건들을 충족시켜주며 양세대간의 의사소통이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된다는 것이다. 문법이론이 과하는 위의 제약 외에 변화에 대한 형식적인 제약은 없고, 다만 L의 변화이론은 (1)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뿐이다.

- (1) i) 양세대간의 의사소통은 유지되어야 한다.
- ii) 문법은 예방보다는 치유를 행한다.
- iii) 가치가 덜한 문법일 수록 재분석을 받는다.
- iv) 일부 치유적 변화는 다른 변화들 보다 더 잘 일어난다.

가능한 변화들의 한계를 형식화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이론보다는 문법이론에 치중해야 하며, 변화에 대한 설명은 바로 이 문법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실제로 일어난 변화들이 이 문법이론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입증해 준다는 것이다. L의 문법이론은 변화를 설명해 주는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다. 재분석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우리는 문법이론에 이르러 그 한계가 깨어지면서 재분석을 촉발하게 됨을 알 수 있으며, TP가 이 일을 떠맡게 됨을 형식화할 수 있다. 이같은 접근법에 의해 통사변화의 통시적 연구는 일반 문법이론에 기초한 연구와도 완전히 합치된다는 것이 L의 주장이다.

2) TP는 설명의 편의상 가정된 하나의 해설장치라는 L의 유보적인 언급에 유의해야 한다. See PDS: 136-7. Cf. Lightfoot(1981:358): "For reasons of exposition I had postulated Transparency Principle, a rather imprecise, intuitive idea about limits on a child's ability to abduce complex grammars"

L은 그의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가지 영어통사 범주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16세기 영어에 일어난 일련의 변화들, 즉 조동사, 양화사, to-부정사의 범주변화, 비인칭구문 등의 변화들은 일괄적으로 그의 문법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1.1. Lightfoot(1979)는 자신의 문법이론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예로 1500년경에 새 문법범주로 도입된 범조동사를 다루고 있다. 고영어와 중영어의 범조동사 전신들은 모두 동사의 자질들을 띠고 있었다. 이들은 인칭과 수의 변화를 겪으면서 부정사 삽입과 도치에서도 동사와 동일한 행동을 했다. 이들은 (i) 서로 나란히 위치하고, (ii) 부정사 또는 동명사 형태인 비정형(non-finite)으로 나타나고, (iii) 직접목적어를 취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일련의 우연한 변화들이 일어 나면서 범조동사 전신들이 일반동사와는 다른 별개의 그룹으로 고립되었으며, 끝내는 재분석이 일어나 조동사 전신들을 별개의 범주로 만들어 냈다. 그 일련의 변화는 (2)과 같다.

- (2) i) 범조동사 전신들은 직접목적어를 갖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 ii) 3인칭 단수 현재에 붙었던 어미를 상실하므로써 굴절형태상 다른 동사들과 구별되어진다.
- iii) 범조동사 전신의 과거시제형은 실제 과거의 시간과는 무관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 iv) 범조동사 전신은 예견되는 SVOM의 어순에서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SMVO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다.
- v) 범조동사 전신을 제외한 거의 모든 동사들은 to-부정사형을 띠게 된다.

이러한 변화들이 1500년경에 일어나면서 그 결과 범조동사 전신은 동사범주 안에서 많은 예외적인 자질들을 띠게 된다. 또한 이 무렵, 네개의 변화가 거의 동시에 일어나면서 범조동사 전신이 들어설 자리를 상실하게 된다.

- (3) i) 부정사 형태를 갖지 못하게 된다.
- ii) -ing형태로 쓰이지 못하게 된다.
- iii) 두 개의 범조동사 전신이 나란히 병렬되지 못한다.
- iv) have-pp.의 완료형으로 쓰이지 못하게 된다.

L은 위의 사실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끌어 내고 있다: 위의 변화들 때문에 생긴 동사의 예외적 자질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TP가 설정하고 있는 복잡성의 한계를 넘어서게 된다. 이 불투명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언어습득세대들은 범조동사라는 별도의 새로운 문법범주를 만들어낸다. 이 같은 재분석이 있기 전에는, 시제(Tense)란 제 1 동사에 부착된 하나의 자질에 불과했다. 그러다가 범조동사 전신이 비동사(非動詞), 즉 조동사로 재해석됨에 따라 시제는 Aux절점하의 범조동사와 함께 생성되는 별도의 최초성분으로 재분석되었다. 초기의 문장을 구성하던 구구조규칙 (4)가 재분석뒤에는 (5)로 바뀌었다.

- (4) S→NP VP
- (5) S→NP Aux VP
- Aux→T(M)

1.2. 영어 양화사에 관한 절에서 L(1979)은 양화사도 TP의 결과에서 비롯되는 범주 변화를 겪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범조동사의 경우와는 달리, 양화사 전신은 급격한 변화를 겪지는 않았다. 양화사 전신은 본래 고영어에서 형용사의 통사 범주에 속해 있었

다. 초기 중영어 시대까지만 해도 형용사와 양화사 전신은 굴절어미를 공유하였다. (a) 명사의 앞에서, (b) 한정사 앞에서, (c) 명사의 뒤에서, (d) 부분속격과의 용법에 있어서, (e) 명사적 용법에 있어서, 양자는 모두 동일한 굴절을 공유하였다.

그런데 비교적 자유로웠던 형용사의 행동범위가 협소해 지는 일련의 변화가 후기 중영어에서 초기 현대영어로 이르는 동안에 일어났다. 이 무렵 양화사 전신을 제외한 형용사들은 운신의 폭이 좁아지면서, (a) 한정사 앞에서, (b) 부분속격 앞에서, (c) 명사의 자리에서,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되었다. 이 변화들은 오히려 전혀 변화 없이 그대로 행동반경을 유지해 온 양화사 전신을 특유의 범주로 돋보이게 만들어 놓았다.

양화사 전신은 명사의 자리에서 운신폭이 커지면서 점차 명사의 범주에 속할 수도 있었겠으나, 결국 양화사라는 별도의 범주로 재분석 되었다. 이 무렵에 일어난 일련의 변화들을 요약하면 (6)과 같다.

- (6) i) all과 both가 처음으로 부분속격에 나타난다.
- ii) “한정사-양화사 전신-명사”구가 소멸 된다.
- iii) 양화사 전신의 복수연결이 소멸 된다.
- iv) “형용사-한정사-명사”구가 소멸 된다.
- v) “명사-형용사”구가 소멸 된다.
- vi) 형용사의 명사적 사용이 이후로는 소멸 된다.
- vii) -ly가 부사를 만드는 생산적 접미사가 되기 시작한다.

위의 사실은 이제 구구조규칙이 형용사를 명사 앞에서 생성하며, 양화사라는 새 범주가 이보다 더 앞의 자리에서 생성됨을 보여준다. 구구조규칙을 만들어 보면 (7)과 같은데, [Spec N^o]는 양화사의 자리를, 그리고 [Spec N^o]는 한정사의 자리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7) 명사구 확장규칙 :
- N^o → [Spec N^o] N^o
 - N^o → [Spec N^o] N^o
 - N^o → (Adj) N

이와 같은 규칙체계가 주어지면 (6i)~(6v)는 자동적으로 설명되며, (6vi)는 형용사와 양화사의 행태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는 점에서 새 범주의 출현에 일부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양화사의 출현은 조동사의 출현과 그 시기가 같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6세기에 일어난 일곱가지의 일련의 변화들은 새로운 명사구 확장규칙들로 이루어지는 재분석의 결과이다. (6i)~(6v)와 같은 변화들의 동시성은 재분석으로 밖에는 일괄적 설명이 안되며, 이 재분석은 위의 새 구구조규칙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1.3. 범주 변화의 또 하나의 예로 L은 to-부정사의 변신을 들고 있다. to-부정사는 본래 명사구였던 것이 TP에 의한 범주변화의 결과로 명사구의 지위를 상실하고 동사구로 변했다는 것이다.

to-부정사가 본래 명사구였다는 가설은 고영어 원형부정사가 명사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로 부터 뒷받침 되고 있다. 또한 선사 고영어의 부정사가 굴절체계를 비교적 온전히 갖춘 동사적 명사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이다. 고영어로 와서는 부정사 어미가 -an.

이었고 유일한 굴절형은 여격의 -enne였는데, 이 여격형은 전치사 to의 목적어로 나타났다. 부정사 표시의 격어미 마저 점차 쇠퇴하자 부정사의 명사적 특성을 표시하기 위해 전치사 to가 도입되었고 그 후 부정사 to-V의 변형으로 for-to-V가 도입되어 병용되었다. 이리하여 to-부정사는 초기중영어 시기에 원형부정사를 대체하기에 이른다. 굴절어미의 소멸은 더 이상 to-부정사를 명사구로 보지 않게 만들었으며, 이처럼 to-부정사가 명사구의 내면 구조를 상실하게 되어 드디어는 동사구로 재분석 되었다.

명사구로부터 동사구로의 재분석은 (8)과 같은 표면변화에서도 알 수 있다.

- (8) i) 'for NP to V'의 출현
- ii) 'for to V'의 소멸
- iii) 'P to V'의 소멸
- iv) 수동태로 쓰이던 to-부정사의 소멸

그런데 이들 변화가 일어난 시기가 맞아 떨어진다 하는 것이 놀랍다. to-부정사의 명사적 특성들이 모두 같은 시기에 소멸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제 분명한 결론은 여기에서도 재분석이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같은 재분석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 변화도 역시 TP의 작용으로 볼 수 있다.

1.4. L의 이론 및 그의 가설을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통사 변화에 관하여 제기될 수 있는 여러가지 이론들 중에서 가장 설명력이 있는 문법이론[생성문법이론]을 정립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문헌자료들을 찾아내는 것이 통사연구의 목적이다. 둘째, 문법이론에는 문법의 각 부분들에 유효적 가치들을 정하는 평가척도가 들어 있다. 유효적 가치를 보다 많이 지닌 문법일 수록 변하기 쉽다. 어떤 변화들은 문법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문법은 유효를 줄이기 위해 재분석을 겪게 된다. 언어는 예방보다 치유를 행한다. 셋째, L의 이론안에 들어 있는 한가지 중요한 개념은 변화들의 「동시성」이다. 서로 일관성이 없는 것 처럼 보이는 일련의 변화들이 문법안에서 일어난 한 가지 규칙 변화[재분석]의 결과로 이들 변화가 동시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이 개념안에 들어 있다. 넷째, 또 한 가지의 중요한 개념은 「투명성 원리(TP)」이다. 이는 기저구조와 표면구조와의 거리가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게 하는 제약이다. 문법이 매우 표가 난다는 것은 기저구조가 불투명해진다는 뜻이며 언어습득세대가 분간하기 어려워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불투명성(opacity)이 어떤 한계에 이르면, 문법은 기저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하고 표면구조에 가깝도록 하기 위해 재구성 된다. 불투명성을 초래하는 복잡성, 즉 예외적 행태의 증폭이 TP의 개입을 결정한다.

2. Bennett(1979)에 따르면, 일부 통사변화는 증폭되는 파생의 복잡성, 즉 기저구조와 표면구조 사이의 증폭되는 거리에 의해 야기된 것이 아니고 증폭되는 여러가지 예외적 자질들의 불편한 사용에 의해 야기 되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일부 통사변화들은, 특히 재분석이 기저구조와 표면구조의 거리를 좁혀주는 경우, 기저구조의 불투명성이 변화의 원인이라는 L의 견해에 의문을 제기하며, 의미의 양면성을 지닌('ambivalent') 문장에 대한 재분석을 통사변화의 원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B의 주장이다.³⁾

3) Bennett의 이론전개의 발판은 관계문법(relational grammar)이며, 따라서 범주동사의 범주변화는 격 굴절체계의 붕괴에 기인한다는 것이 B의 견해이다(1979:844-7).

2.1. 조동사 전신이 그 예외적인 행태로 인해 급기야는 조동사라는 별개의 범주로 발전했다는 L의 주장에는 이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L의 TP를 뒷받침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재분석이 기저-표면구조의 거리를 좁혀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B의 주장이다.

L은 (2)에서 언급한 다섯개의 변화(i-v)가 조동사 전신의 범주를 불투명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기저구조도 불투명하게 만들어 급기야는 표면구조와의 거리를 벌려 놓았다는 견해이다. 그리하여 조동사라는 범주가 생겨남으로써 기저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어 표면구조에 더 가까히 다가서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B에 따르면, 변화 (2)에서 비롯된 예외적 가질들이 조동사 전신이 들어 있는 문장들의 기저구조와 표면구조간의 거리를 벌어지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B에 따르면, (2i)는 엄밀하위범주화의 문제로 처리하면 된다. 즉, 조동사 전신들은 그들의 어휘항목에서 [+NP]라는 자질을 상실하는 것 뿐이다. 더군다나 완전자동사들도 직접목적어와 공기하지 않으므로 이 변화는 조동사 전신들을 모든 동사들과 구별짓게 해주지는 못한다. 다만 타동사들 하고만 구별 지어줄 뿐이다. 그러므로 (2i)은 조동사 전신의 고립화나 조동사 범주의 출현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이 B의 주장이다.

또한, B에 따르면, (2ii)는 어휘항목의 특성의 면에서 형식화하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CAN의 3인칭 단수 현재는 can이며 *cans가 아니라는 식으로 표하면 된다. 이 점에서는 고영어의 과거-현재동사들은 모두 예외적이었다. 같은 굴절의 부류에 속했던 여타 과거-현재동사들의 소질이 문법의 복잡성을 초래했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다만 이 변화가 조동사 전신들을 동사의 하위범주로 고립시켜 놓았을 뿐이다.

(2iii)의 경우, 과거시제 어미가 붙은 조동사 전신에 실제 과거 시간을 부여하는 해석이 막혀버렸다. 그러므로 이것은 의미해석규칙에 대해 어휘가 갖는 예외의 문제일뿐 기저-표면구조간의 거리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2v)는 [+NP] 자질의 소멸이며, to-부정사가 본래 명사구 였다는 L의 주장에서 보면 이는 자동적인 결과이다. to-부정사가 동사구로 재분석된 시기가 우선해도 조동사 재분석의 시기와 일치하며, 새 문법은 역시 조동사 +to-부정사의 결합을 막아버렸다고 보면 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조동사 범주의 도입이 변형을 가단화하고 기저구조를 투명하게 하여 표면구조에 근접시켰다는 L의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B의 주장이다.

2.2. 영어 양화사에 관한 B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재분석에 앞서 필요한 것은 예외적 자질들의 본질을 재고하는 일, 즉 양화사구문이 어떤 기저구조에서 어떻게 도출되었는가를 알아 보는 일이다. 고영어의 양화사는 통사적 분포에 있어서 형용사와 동일하다고 하나, 다만 한 가지 다른점이 있다는 것이다. 즉, 양화사는 술어적으로는 쓰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화사는 형용사들 처럼 관계사에서 도출된 것이 아니고 구구조규칙에서 처음부터 부가적인 자리에서 생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L에 따르면, 영어양화사는 현대영어에서는 독특한 범주에 속해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고영어의 양화사 전신은 그 분포에 있어서 매우 자유로웠다. 그 분포적 특성을 요약하면 대략 (9)과 같다.⁴⁾

(9) i) 명사의 앞에서

4) See Carlson(1978)

wið *ealle* wundela, genim þas wyrte. c. 1000 Sax. Leechd.

ii) 한정사의 앞에서

ofer *al* his rice. 855 OE Chronicles

iii) 명사의 뒤에서

and þa scipo *alle* zerahton. 885 OE Chronicles

iv) 부분속격과 함께

ðæt he spræc to his liornæra *sumum*. c. 875 in OE Texts

v) 부동(=floating)

hit is Adame nu *eall* forgolden. a. 1000 Gen.

vi) 명사적으로

ælc hine selfa begrindeþ gastes duggedum. a. 1000 Gen.

위의 자료를 놓고 L은 양화사 전신의 행태가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현대영어와 비교할 때 이들의 분포위치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그런데 B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펴고 있다.

B는 (9ii)에서 두 가지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즉, 양화사 전신만이 한정사 앞에 올 수 있는 예외적 자질을 갖고 있었던가 아니면 처음부터 구구조규칙에서 생성되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다. 어쨌던 기저-표면의 거리가 증폭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9iii)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고영어에서 명사의 뒷자리에 오는 양화사는 아마도 수식어후치(Modifier Postposing)라는 변형규칙에 의해 도출되었을 것이다(AN→NA). 형용사절이 관계사절에서 왔다면, 형용사는 관계절축소(Relative Clause Reduction)에 의해 명사의 뒷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양회사의 해석에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다. 수식어전치가 수의적이던가, 아니면 그것이 의무적이고 수식어후치를 수의적으로 적용토록 했던것이다. 일반 형용사의 명사 뒷자리의 기능 상실은 수식어후치를 소규칙(a minor rule)으로, 그리고 수식어전치를 의무적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 경우, 양화사 전신의 예외성이란 단지 그들만이 소규칙을 겪었다는 것뿐, 기저-표면구조의 거리하고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9v) : L에 의하면, 고영어의 부동현상(floating)에는 두 가지 분석이 가능하다. 이들은 부사형이며 따라서 구구조규칙에 의해 생성된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들은 형용사로서 위치변환규칙(Scrambling Rules)에 의해 떠돌아 다닌다고 볼 수도 있다. 전자의 해석을 따르면, 중영어에 와서 형용사에 대응하는 부사들의 대부분을 어휘항목에서 제외시켰다고 볼 수가 있고, 후자의 해석을 따르면, 위치변환규칙은 소규칙이 되어 한 줌밖에 되지 않은 형용사, 즉 양화사 전신들에만 적용 되었다고 볼 수 있다. B는 여기서도 재분석이 기저-표면구조의 거리를 좁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9vi) : 양화사를 제외한 형용사들이 명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5세기말 복수형용사들(e.g. the strong [men])만이 명사의 자리에서 쓰였으나 양회사 전신만은 행동이 자유로웠다. 형용사에 수식되는 핵명사(head noun)가 복수여야 한다는 조건을 달던가, 아니면 형용사들은 특유한 하위부류에 속한다는 단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문법의 복잡성이 증폭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기저구조가 불투명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재분석 이전의 양화사 전신의 예외적 특성이 기저-표면구조의 거리를 증폭시

킨 것은 아니며, 다만 예외적 자질들과 소규칙들의 과용을 초래한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 B가 주장하려는 것의 골자이다.

2.3. 비인칭구문에서 L이 변화의 이유로 본 것은 SVO기저에로의 변화이며 TP와의 상호작용이었다. 그러나 L이 생각하고 있는 변화방식이 실은 유추작용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the king liked the pears*는 언어습득세대에 의해 당시 지배적인 어순이던 SVO에 따라 OVS가 아니고 SVO로 분석되어진 것이다. 이는 언어습득세대에 의해 그들의 부모들의 모델과는 다른 구문으로 분석하는 변화의 메카니즘의 하나의 본보기라 하겠다. 이같은 메카니즘은 여러가지 이름들로 불려져 오고 있다.⁵⁾ 재분석에 앞서 표면구조에 두개 이상의 구조가 할당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모호해진다는데 변화의 메카니즘이 존재한다. B는 이같은 구문을 양면적인('ambivalent') 구문이라고 부르고 있다. *the king liked the pears*는 양면성이 있으며, 따라서 OVS, SVO의 양면으로 해석되었던 것이다. 언어습득세대는 그 구문의 내력을 모른채 당시의 표준어순이었던 SVO로 해석하게 된다. 그런데 L은 이 불투명성을 변화의 '원인'으로 보고 재분석을 그 변화가 일어난 메카니즘으로 보고 있다는게 B의 주장이다.

이 변화가 영어의 기본 어순인 SVO에로의 변화에서 비롯되는 불투명성에 의해 일어났다는 주장은 다른 언어들도 기본 어순이 SVO이지만 하면 같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불러 일으키는데,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SVO에로의 변화에 의해 야기된 불투명성 때문에 비인칭구문이 재분석 되었다는 견해와는 상치되는 예들을 B는 루마니아어, 고영어, 독일어, 스칸디나비아어에서 들고 있다.

첫째, 루마니아어의 예를 들면, 기본 어순이 SVO인데도 고영어 비인칭 구문과 같은 OVS 구조를 아직도 보존하고 있다.

- (10) a. imi place cartea aceasta
me-DAT pleases book this: I like this book
- b. Anei ii plac tigerile englezesti
Ann-DAT her-DAT please cigarettes English: Ann likes
English cigarettes

SVO 기저구조에서 (10)을 도출 하려면 양쪽에 있는 두 명사구의 동시 이동을 요한다. 그러나 이처럼 도출이 복잡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루마니아어의 OVS의 예는 영어의 경우와는 달리 SVO로 재분석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 예들이 *the king liked the pears*처럼 양면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며, 루마니아어에는 격(case) 굴절체계가 상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격 굴절이 두 명사구의 문법관계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10)에서는 그대로 OVS를 유지해 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사용자들에게 문장의 정확한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만 주어지면 기저—표면의 거리는 묵인될 수 있다. 이것은 변화의 원인은 양면성에 있는 것이지 불투명성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B의 주장이다.

둘째, 단일논항동사(single-argument verbs)를 거느린 비인칭구문의 인칭구문으로의 변화는 독일어나 고영어와 같은 SOV 언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단일

5) 'misassignment of constituent structure'(Parker, 1976), 'reinterpretation'(Anttila, 1972:93, 128), 'restructuring'(Traugott, 1972:11;83), 'reanalysis'(Langacker, 1977).

논항 비인칭구문의 인칭구문으로의 변화는 SVO 기저어로의 변화와는 무관하다는 증거가 고영어(11)와 독일어(12)에 있다.

- (11) a. ic pyrste. *John* 19 : 28
 b. pa hyngerde he. *Mark* 2 : 25
 c. hie hyngrif & pyrstab. *Matthew* 5 : 6
- (12) a. mich hungert: ich hungere
 b. das kind hungarit
 the-child-ACC is hungry-Impersonal Verb:
 the-child-NOM is hungry-Personal Verb

고영어나 독일어의 기저구조가 SOV이지만, 일부 비인칭동사 구문들은 양면성을 지닌 구조의 재분석을 통해서 인칭구문으로 변했던 것이다.

셋째, 스칸디나비아어들은 SVO 구문이지만 비인칭구문을 모두 없애지는 않았으며, 이들 비인칭구문이 상존하는 것은 격 굴절체계가 상존하기 때문이라면서 B는 Haugen의 스웨덴어 예문을 인용하고 있다.

- (13) a. mich törster.
 me thirst-3s: I am thirsty.
 b. jag torstar.
 I thirst: I am thirsty.

스칸디나비아어들을 보면, 비인칭구문의 재분석의 원인은 SVO 어순의 채택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격 굴절체계의 와해에 있다고 본다. 같은 스칸디나비아어족 중에서도 아이스랜드어나 페로어처럼 굴절체계를 온전히 보존하고 있는 언어에서는 비인칭구문이 보존되고 있는데 반해서, 격어미를 잃어버린 대륙의 동쪽어들에서는 무주어 비인칭구문이 소멸되었다는 것이다. B는 격어미의 소멸이 있고 나서 비인칭구문의 재분석이 뒤따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저-표면의 거리에서 오는 불투명성이 변화의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인칭구문으로의 정세변화는 순전히 불투명성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되며 양면성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영어의 조동사, 양화사, 비인칭구문 등의 변천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들을 뒷받침하고 있다는게 Bennett의 견해이다.

- (14) i) TP는 예외적 자질들, 소규칙들, 그리고 규칙고유조건들(Rule-Specific Conditions)의 제거라는 시각에서 형식화되어야 하며, 기저-표면구조의 거리 축소의 관점에서 형식화되어서는 않된다.
- ii) 재분석은 기저구조를 표면구조의 가까이에 두는 것이 아니고, 예외적 자질들의 사용을 제거하고 어류(word class)의 귀속관계를 보다 확실하게 조정한다.
- iii) 재분석을 초래할 정도의 불안정한 상태가 발생하는 시기는 예외적 자질들의 집합이 보다 큰 어류 중에서 일부 비슷한 하위부류를 골라 잡을 때이다.
- iv) 이런 상태가 성립되면, 그리고 그 하위부류가 의미론적인 부류를 형성하면, 그 하위부류가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문법범주로 재분석 되기 쉽다.

L이 TP라는 하나의 원리로 설명하고자 하는 영어 통사변화들은 두 가지의 유형으로 대

별해야 한다는 것이 B의 주장이다. 그 하나는 새 통사법주의 출현인데, 이것을 설명하려면 대개 다음과 같이 형식화된 TP를 요한다. 즉 어류에 속하려면 최대한의 규칙성을 공유하여야 하며, 예외적 자질들이 문법의 유표화에 이바지 한다. 다른 하나는 양면적 문장구조들의 재분석이다. 이 재분석은 유추를 통해서 구문을 만들어내는 형식을 취하던가, 아니면 SVO란 기존구문(the king liked pears)을 계속 사용하는 형식을 취하던가 이다. 특히 비인칭구문의 변화에 대하여는 SVO가 확립된 결과로만 볼게 아니고 굴절체계가 무너진 결과로 보아야 한다. 더욱이 SVO가 확립된 뒤에도 200년 동안 비인칭동사를 가진 OVSG구문이 존속 되었다는 사실을 B는 환기시키고 있다.

3. Romaine(1981)은 PDS가 특정문법 모델의 틀 안에서 본격적이며 포괄적인 통사변화 이론을 제시한 선구적 연구 업적을 인정 하면서도, L의 TP와 자율통사이론을 비판하고 있다. TP는 통사변화를 예측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다는 것이 R의 주장이다.

R이 지적하고 있는 PDS에서의 TP의 역할은 (15)와 같다.

- (15) i) TP는 문법이론의 하나의 독립된 원칙이다. TP는 통사부분에 제한을 가하는 초문법적인 원리이며, 이것은 자율성원리와의도 일치한다. (PDS: 114, 239)
- ii) TP는 주로 역사적 변화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낸다. (p. 123)
- iii) TP는 통사변화 혹은 통사 재분석이 일어나는 대목을 예측한다. (p. 123)
- iv) TP는 재분석 혹은 통사변화를 설명해 준다. (p. 114)
- v) TP는 예외의 정도나 도출의 복잡성에 한계를 그어주고, 복잡하지 않은 도출만을 허용한다. (p. 115, 122)
- vi) TP는 필요시에만 적용된다. (p. 124)
- vii) TP는 변화가 필요한 시기(when)만을 예언할뿐 변화의 형태는 예언하지 못한다. (p. 343)
- viii) TP의 적용은 맹목적이다. 즉, 재분석은 본질적으로 국부적인 문제들만을 해결해 준다. (p. 123)
- ix) TP는 그 적용에 일치하는 기술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경쟁적인 다른 분석들이나 공식적문법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내는 기본원리이다. (p. 125)
- x) TP는 통사에 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의 변화에도 적용될 수 있다.

R에 의하면, L은 자신의 이론을 반박하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방해장치를 요소 요소에 설치해 놓고 있다는 것이다. 또 L이 범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오류는 광범위한 문헌자료의 정밀한 이용이 아니고 자기 설명에의 심취이다. 「자료를 소홀히 하고 무엇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라고 R은 반문하고 있다. L은 통사변화의 모양새에는 관심이 적고, EST 모델에 상치되는 자료를 이용한 반박의 가능성마저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R에게 남겨진 유일한 반박의 길이 있다면 EST나 TP의 적용에 합당하지 않는 다른 접근법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 뿐이라는 것이다. R은 또한 L이 TP가 하나의 독자적인 원칙임을 강조하면서도, 그리고 L이 엄격한 자율성 원리에 매달려 있으면서도, 결국 지각전략(perceptual strategies)에 의존하게 된다는 말을 함으로서 문법이론과 일반 지각메카니즘을 결합시키고 있다고 공박한다.

R의 비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L이 엄격한 자율성 원리에 매달려 있으면서 TP와 지각전략의 상호 연관성을 인정하는 것은 모순이다. 또한 TP가 독자적인 초 문법적 원리라는 것과, 언어를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 기능적 메카니즘으로서의 치유적인 역할과의 같

등 때문에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는 TP가 무의미 하다. 만약 통사변화가 자율적이며 의미와 사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왜 치유적이라던가 화자의 필요에의 순응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가? 만약 문법이 하나의 자율적인 존재라면, 복잡성을 제거하기 위해 언어가 왜 변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TP는 하나의 문법이론에 과해진 심미적인 (따라서 반박할 수 없는) 기준에 불과하며, 이러한 TP는 설명력을 잃게 된다.

통사변화의 원인을 전적으로 문법원리에서 찾으려는데 무리가 있으며, 예컨대 의미론적, 화용론적, 유형학적, 언어심리학적, 사회언어학적 접근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저의가 R의 주장에 들어 있다.

4. Fischer and Leek(1981)는 L의 TP와 재분석을 수용하면서도, 재분석을 두 가지 유형(급격한 것과, 점진적인 것)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FL이 지적하는 L의 이론의 취약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L은 문법이 변하므로써, 즉 재분석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동시적 변화들(예 : 비인칭구문)과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동시적 변화들(예 : non-lexical passives)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동시성」의 개념은 그 진실성이 퇴색해 버리기 쉽다. 이것은 L이 TP에 의해 통사변화를 설명 하려는데만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이다.

재분석에 관한 L의 제안들의 공통점은 (16)과 같다.

- (16) i) 제멋대로 일어나는 일련의 우발적인 변화들이 재분석[문법변화]을 받는다.
- ii) 재분석은 불투명성을 제거하기 때문에 필수적이다.
- iii) 동시적으로 일어나지만 서로 무관하게 보이는 일련의 변화들은 각기 재분석이 일어난다는 징후들이다.

(16 i - iii)은 언어변화를 「우연과 필연(chance and necessity)」의 기능선상에서 바라보는 L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같은 견지에서 L은 변화가 필연적인 것임을 보여주지 않는 한 변화를 설명했다고 할 수 없다고 피력하고 있다.⁶⁾

그런데 FL에 따르면, 변화란 우연적일 수도 있고 필연적일 수도 있으며, 우연적인 것도 필연적인 것도 아닌 또 다른 변화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면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으나,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예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변화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어떤 변화들 때문에 어떤 표면구조들이 옛날에는 없었던 둘 이상의 구문분석을 허용하게 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변화들은 불투명성을 없애는 효과를 지니지 못한다. 그와는 반대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즉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문법(이론)이 제공하는 가능성들을 가장 바람직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for NP to V...구문, 복합동사(complex verbs)구문, 전치사적 수동구문(prepositional passives)의 출현은 이같은 유형의 변화, 즉 수의적인 재분석의 사례이다.⁷⁾ 수의적인 재분

6) PDS: 281: "...a set of simultaneous changes in the distribution of passive expressions in English has been accounted for in terms of some formal machinery within the EST. In this case, claims have been made about the proper formulation of the changes but not about why the changes took place."

7) For FL's 'optional/gradual reanalysis' vs 'radical reanalysis', see Fischer and Van Der Leek (1981).

석은 (17)과 같은 특성들을 가진다.

- (17) i) 무관하게 보이는 변화들이 구문의 모호성을 빚어낸다.
- ii) 그러면 재분석은 수의적으로 적용한다.
- iii) 이 재분석으로 열려진 가능성들의 토대 위에서 하나의 새로운 표면구조가 출현한다.

예를 들면, 첫째, SOV→SVO의 과정에서 'benefactive' *for*가 도입된다. 둘째, NP V *for* NP[[PRO to V...]]가 NP V[*for* [NP to V...]]로 수의적으로 재분석된다. 셋째, *for John to get away with it is intolarable*과 같은 구문이 출현한다.

FL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문의 소멸은 급격한 재분석에 기인하며, 둘째, 새 구문의 (점진적인) 출현은 수의적인 재분석에 기인한다.

5. Lightfoot의 기본 가설과 이 가설의 심리적 토대는 본고 제 1절에서 약술한 바 있다. 언어습득세대가 어려서 부딪치는 언어환경에서 겪게 되는 재분석 격발경험과 뒤에 오면서 터득하게 되는 비교적 성숙한 문법체계 간의 괴리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문법이론을 가정하게 된다. 우리가 가정하는 문법이론은 어린이가 갖고 태어난 유전적/내재적 능력을 토대로 그 후 성숙한 문법에 도달하는 경위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만약 어린이가 크면서 현재의 언어지식에 도달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려면 그의 (a) 유전적 능력, (b) 재분석 격발경험, (c) 그 후의 성숙한 문법을 기술해야 한다는 것이 L의 기본 가설이다.

이 세 가지 본질에 대한 주장 또는 가설은 여러 종류의 현상들을 연구하다 보면 이끌어 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어릴때의 격발경험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성숙된 문법 위주의 연구가 언어적관을 얻어내는 중요한 공급원이 되어 왔다. 그러나 나머지 두 가지의 본질을 빼어버린 연구는 이제 설득력이 없어졌다. 이들 세 가지 본질들에 관한 가설은 생물학, 유전공학, 비교행동학 등의 연구 결과에서도 나올 수도 있지만, 청각신호/음성기호를 듣고 문장을 이해하는 문장분석방식(language processing)에서도 끌어낼 수 있다. 이 문장분석방식은 뇌성마비 환자가 겪는 언어결손, 어린이가 거치는 언어발달의 순차적 단계, 그밖에 여러 종류의 연구자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L은 언어변화를 연구함으로써 위의 세 가지 본질의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견해를 펴 려고 있다.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문법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고찰함으로써 문법의 본 질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L은 화신하고 있다. 이같은 L의 균형감각은 역 사언어학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제공해 주고 있다. 「설명」의 문체는 항상 역사언어 학자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 왔으며, 사실상 그들은 옛부터 언어학의 다른 분야에서 보 다도 더 「설명」에 관심을 두어온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들은 보다 세련된 심리학적 이론 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그들의 설명을 심리학적인 토양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음이 분명하다.⁸⁾

일찍이 역사언어학자들의 심리학적 개념이 미흡적이었던 것에 대한 반발이 었는지 어졌던

8) Grimm(1848) explained the sound changes described by his 'law' by saying that they were "connected with the Germans' mighty progress and struggle for freedom...Does there not lie a certain courage and pride in the strengthening of voiced stop into voiceless stop and voiceless stop into fricative?" Jespersen(1928) claimed that the well-known change in the meaning of *like* in Middle English "was brought about by the greater interest taken in persons than things"(Lightfoot 1981:353).

『설명』에 대한 관심이 한 동안 뜸해졌었다. 따라서 통사변화 연구에도 이것을 반영한듯이 『설명』에 소홀해진 감이 있었다. 최근 통사변화 연구에는 두 가지의 경향이 있어 왔다.

그 하나는 소위 「유형학적인 설명」을 강조해 오고 있는 유파인데, 이 진영의 거장은 Sapir와 Greenberg이다. 언어유형학에서는 언어의 표면적 특성들의 조화 여부에 따라 언어들을 순수형과 불순형으로 구별하고, 만약 어떤 언어가 하나의 새로운 특성을 띠게 되면 그것은 이 언어가 옛부터 관련이 있는 순수한 언어에서 진일보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간주한다. 이에 대한 더 이상의 논의는 피하겠고, 다만 여기서 부연하려는 것은 이것이 「설명」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의 경향은 Romaine에 의해 대변되는 연구들인데, 여기서는 문법들을 연구 단계에 있는 시기 마다 각각 형식화하고 한 시기에서 다른 시기의 문법으로 변해 가는 형식적 특성들에만 관심을 쏟는다. 이들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이 과도기적 변화들의 「점진성」과 문법의 「간단화」에 있다. 따라서 여기서도 「설명」에 대한 노력은 별로 없다 하겠다.

만약 우리가 심리적 균형감을 가지고 문법 하나 하나를 신중히 살펴보면, 현행 문법들이 언어변화에 관한 훌륭한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 반대급부로 우리는 언어변화 연구로부터 문법의 일반적 본질에 대한 통찰력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16세기경의 영어 범조동사, 양화사, to-부정사, 비인칭구문 등에서의 범주 및 구문 변화는 바로 「설명」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만약 L이 주장하는 균형감을 가지고 통시적인 연구를 한다면, 바로 이 통시적 변화의 연구는 UG의 특성들을 해명하는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며 UG의 원리들을 가장 잘 형식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균형감은 우리로 하여금 통시적 변화들을 설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줄 것이다—Lass(1980)가 비판하는 ‘근거 박약하고 비현실적인 모델들’ 보다는 더 화고하게.⁹⁾

이같은 접근은 새로운 문법을 반영하는 변화들과 관계가 밀접하다. 만약 하나의 새로운 표현이 언어에 새로 들어 오면 이것은 문법이 새로와진 결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세 세대의 문법은 이전 세대에서 고정화 되었던 것과는 다른 UG의 패러미터를 갖게 된다. 이 새로운 표현은 어쩌다 튀어 나온 기발한 산물일 수도 있고, 이웃 언어로 부터 차용되어 온 표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문체론적 이유에서 생겨난 표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새로운 표현에는 한계가 있어서, 문법이론으로는 이런 것들을 설명할 길이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변화들을 설명하려면 사회적인 그리고 문체론적인 요인들을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인/문체론적인 요인들이 언어변화를 설명하는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은 틀림 없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표현이나 문장구조가 언어에 새로 출현하거나 혹은 이들이 언어로부터 소멸되었을 때, 이것을 외래어의 차용이나 문체상의 신출 표현으로 속단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문법의 변화를 뜻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후자의 경우가 더 문법의 본질을 조명해 준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이미 성숙한 기존문법의 연구는 자극/도전이 충분치 못해 문법의 본질을 궁극적으로 설명해 주지 못하고 한 곳에서만 맴돌았던 점을 상기해야 한다. 또한 UG는 언어사용자들의

9) Lass(1980)는 언어변화에 대한 근거 박약하고 비현실적인 접근들, 이를테면 문법의 심리적 실재와 심리적 균형감각의 도움없이 역사변화에 접근하는 일은 자가당착과 순환논리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모방적/유추적 능력에만 의존하지 않은 통시적 변화의 연구들에서 도움을 얻어야 한다. 이와 같은 변화들이야말로 현행 문법이론들에 대한 도전이며 자극이 된다. PDS에서 L은 그와 같은 변화들을 연구 검토하였으며, 일부 변화들에 대하여는 「설명」을 하였고, 다른 일부 변화들에 대하여는 현행 문법이론들이 제공해야 할 「설명」이 무엇인가를 가능한 한 분명하게 공식화하려고 애썼다.

범조동사라는 새로운 범주가 16세기 이후의 영문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현행 문법이론들로는 설명할 수가 없었다. 만약 이 변화들을 Ross(1969)의 방식으로 형식화해서는 설명은 커녕 타당한 기술조차도 불가능했다. 만약 이것을 다른 범주로 형식화 한다면, UG는 예외적 자질들에 일종의 제한을 가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의 설명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 L의 착상이었던 것 같다.

인칭주어구문(예 : the king liked the queen)에서의 like의 문제는 L이 PDS(5.1)에서 명백히 했으나, 여기서의 L의 견해는 진정한 의미의 설명이 아니었음을 L 자신도 시인하고 있다.¹⁰⁾ L은 like의 의미변화를 TP에 의한 어순의 변화에 연계시켰다. L에 의하면 설명의 편이상 TP를 가정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정밀성은 없고 오히려 복잡한 문법을 함부로 고치는 어린 언어습득세대의 재분석 능력의 한계를 정하려는 하나의 직관적인 발상이었다는 것이 L의 고백이다.

문법의 복잡성은 여러가지 종류에 기인할 수 있다. 이를테면, 동사에 붙는 예외적자질들, 기다란 변형의 도출, 불투명한 도출 등. 만약 이들 통시적 변화에 의해 복잡성이 제거되거나 급해지도록 문법이론이 형식화될 수 있다면, 우리는 재분석에 대한 설명을 얻게 된다. 이러한 변화들은 사회적인 또는 문체론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고 문법이론에 의해 설명되는 변화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재형식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였던 것이다. L이 다루었던 재분석의 사례는 도출의 복잡성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형식화만 가능하다면, 그러한 복잡성을 급하는 TP를 L은 구상했던 것 같다. 이 원리는 끝내 형식화되지 못했고, (비판론자들이 의심했던 것 처럼) UG안에서 TP를 하나의 독립된 원리로 균화려는 의도도 없었다.¹¹⁾

PDS의 몇 군데에서 L이 던지시 밝히고 있는 유보적인 언급들에도 불구하고 PDS의 전편에 흐르고 있는 맥락은 마치 L이 TP를 하나의 독자적인 원리로 위상을 균혀주고 있는 듯이 보인 것이 그의 TP에 대한 비판을 유발하게 된 원인이 되었던 것 같다. L의 의도는, 어떤 변화들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현행문법들에 대한 명백한 도전을 형식화 하고나면, 복잡성의 한계에 대한 직관적인 발상들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것이 었다.

이같은 L의 유보적 발언들에도 불구하고 TP라는 「해설장치」는 Romaine으로 하여금 TP를 실제 존재하는 하나의 독립된 원리로 착각하게 만들어 놓았음이 분명하다. R은 TP를 실제하는 하나의 원리로 작정하고는 실제하지 않은 TP를 비판하기 시작 하였다. R은 비판에 심취한 나머지, PDS에서 언급되지 않은 「수식어」를 아전인수격으로 (16)에 삼입시켰다.

(16ii)에서 R은 「주로(primarily)」란 수식어를 집어 넣고 있는데, PDS(p. 123)에는 「주로 역사적 변화를 통해서」란 뜻을 풍기는 대목은 없다. 하나의 원리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10) See Lightfoot(1981:358).

11) See PDS: 129, 136-7, 344-5.

그리고 여러가지 다른 분야에서도(다른 언어들의 문법에서도, 문장의 분석처리(processing) 또는 실어증 연구 분야에서 나타나는 문법의 여러 국면들에서도) 나타난다. UG는 일부 통사변화를 설명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통사변화를 죄다 설명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16iii)과 (16iv)에는 「일부(some)」라는 수식어가 들어가야 한다. 불투명성은 변화의 충분조건 이기는 하지만 필요조건은 아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그밖에 다른 이유로도 변할 수 있으니까.

특정 문법은, 정확하게 형식화만 되면, 문법이론과 문법원리들은 일치한다. (16vi)에서 R이 지적하고 있는 「필요시에만 적용한다」는 말은 물론 이와 비슷한 말도 찾아볼 수 없다. 이 대목에서 L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문법이론이 격발경험과 상호작용하여 재분석을 요구할때에만 재분석이 일어난다」는 뜻이므로 R이 이해한 것과는 다르다. 같은 이유로 해서, (16viii)에서 TP가 「맹목적으로(blindly)」 적용된다는 말도 R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다.

(16vii)는 좀 더 조심성 있게 다루어야 할 것 같다. 문법이론은 재분석의 시기를 예측한다. 이것은 like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다. 문법이론은 VP→V NP의 구구조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격표지와 접어(clitics)가 없는 LME 문법에서는 the king liked the queen을 OVS로 분석할 수 없음을 충분히 보여주어야 한다. 이론 그 자체만으로는 변화의 형태를 예측하지 못하지만 격발경험에 대한 설명과 결부되었을 때만 그렇게 할 수 있다. 즉 문법이론은 새로운 구구조규칙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경제적인 분석은 the king liked the queen을 SVO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이론들에도 많은 결함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습득세대가 격발경험에 의해 어떤 형태의 문법을 도출해낼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문법이론은 격발경험과 관련해서 새 변화를 예언할 수 있게 된다. like구문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이점을 잘 보여 준다.¹²⁾

현행 문법이론들이 완전무결하다거나 우리가 구하고 있는 모든 특성들을 죄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 문법은 인간의 지적 인지능력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은 L이 여러 곳에서 누누히 밝힌 바 있다. 문법은 지각 메카니즘과 정신구조의 다른 여러 국면들과도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또 문법은 통사규칙이라는 하나의 「모듈(module)」과 상호 영향을 미치는 음운규칙과 의미규칙들로 되어 있다. 통사변화가 자율성을 가지려면, 즉, 만약 어떤 변화가 통사부분의 구구조규칙들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도, 그 접근법에서 다른 설명력들까지 뺏어버려야 할 이유가 있을까? 문법에 별도로 통사규칙들이 있다는 사실은, 예를 들어 언어가 변할때, 의미나 사용(use)에 대한 고려가 별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Fischer and Leek는 L이 그의 동시성을 설명하는데 심취한 나머지 문헌자료에 정확성을 기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L은 PDS에서 문헌자료가 허용하는 것 이상의 동시성을 발견했다」고.¹³⁾ 문법의 재분석이 일어났다는 논의의 전개는 부분적으로는 문장유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동시적 변화들에 의존하게 된다. 만약 어떤 문장유형들이 동시에 소멸 되었다고 할때, 이것은 현존하는 문헌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

12) See PDS: sec. 5.1. Also see Lightfoot(1981:354-8).

13) Fischer and Leek(1981:304).

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그 소멸된 구문은 특정 방언에서 다른 방언들에서 보다 더 일찍 소멸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것은 현존 문헌에서 보여주는 것 보다 더 오래도록 생존했을 수도 있다. 또 어쩌면 많은 개인적인 변이형들이 존재했을런지도 모른다. 수량적으로 보나, 문체적으로 보나, 방언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어쩔 수 없이 여전히 제한된 문헌에 의존하는 한, ME문법에 관한 우리 지식의 괴리와 의문점은 계속 남을 것이다.

초기의 가설들은 총체적인 선상에 세워 놓고 ME와 Mode의 문법간의 차이점들을 알아 보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중영어의 유일무이한 문법(*the grammar of ME*)」 같은 것은 없다. 오히려 수많은 언어차용자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자기 다른 내재적 문법들을 갖고 있었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우선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질적 언어사회라는 관념에 맞추어 심리적 실재인 이상화된 추상적 문법을 만들어 내야 한다.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서 우리는 그 이상화된 것들을 어느 정도 다듬어 낼 수 있고, 현대영어 연구에서 처럼 문법의 하위계층의 형태들을 가려내게 된다. 가끔 힘겨운 일일런지는 모르나, 우리는 가능하면 정밀성을 띠고 관련된 일련의 현상들이 집단적으로 동시에 행동했고 관련된 구문들이 모두 특정 작가의 언어에 쓰였는가, 아니면 아니 쓰였는가를 보여주려고 노력하게 된다. 물론 가능하면 얻을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정밀하게 견해를 펴려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문법의 변화와 언어사회에서 새로운 특성들이 번져 나가는 양식을 조심스럽게 구별해야 한다.

FL은 영어 법조동사의 범주 변화에 관한 L의 견해에는 아주 만족해 하면서도 양화사의 분석에는 덜 만족해 하는듯 하다. 문제는 과연 L의 이상화가 그릇 되었는가 이다. 다른 저자들의 글에서 인용된 고립된 문장들을 다룰때는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결국 언어사용자 작자의 모든 문법이 동시에 변했다고 가정할 이유는 없다. 또 언어습득세대의 격발경험이 방언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FL이 내세우고 있는 한 가지 큰 주장이 있다. L의 양화사 전신은 본래부터 형용사가 아니라 OE에서부터 줄곧 양화사였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분명 대부분의 기술문법에서의 직관적인 분석들 하고는 다른 주장이다. FL의 견해가 옳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견해를 뒷받침할 적절한 규칙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만약 OE *all*, *many* 등이 양화사라면, 이와 관련된 구구조규칙들과 변형규칙들은 현대영어문법이 갖고 있는 규칙들 하고는 판이하게 다를 것이 틀림없고, 또 그 규칙들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지 상상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영어 부정사와 명사구 전치(NP Preposing)에 관한 FL의 견해는 대체로 L의 견해와 동일하다는 것을 부연한다.

Bennett(1980)는 그의 주장을 관계문법(*relational grammar*)의 입장에서 형식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통사구조의 출현 가능성을 격 굴절체계의 붕괴에 연계시키고 있다. B는 직접목적어를 주어의 자리로 이동시키는 규칙이 옛부터 항존해 온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격체계가 소멸함에 따라 직접 목적어의 정의가 허술해 졌으며 B는 새로운 수동구문의 출현을 여기에 결부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help*는 본래 여격이 뒤따랐으므로, 격표시가 있는 한, 이에 대응하는 수동구문이 없다가 뒤에 여격이 소멸되자 수동구문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여기서 B의 주장에 문제가 생긴다. 만약 *sleep in*이 ME 이후 복합동사로 기능했고 *the bed was slept in*과 같은 수동구문을 허용해 왔다면, 진작 목적격이 분명히 존재했던 그 이

전(EME 또는 OE)에는 sleep의 수동구문이 왜 없었는가? B에 의하면, the bed was slept in 같은 구문은 그가 예로 들고 있는 다른 변화들과 동시에 재분석으로 일어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동시성은 필연적이 아니고 우발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 John was given the book를 허용하는 여격 이동규칙(Dative Shift rule)의 동시적인 출현도 그의 분석에서 보면 우연적인 산물로서 필연성에 의한 「설명」을 결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L에 대한 몇몇 비판적인 견해들을 살피고 L의 입장을 옹호하는 대목들을 찾아서 검토해 보았다. 특히 L의 방법론적인 입장표명에 중점을 두어 문제점들을 생각해 보았다. 역사적 문헌자료들을 가지고 연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고 현행 문법이론들에도 개선해야 할 점이 아직 많다는 것을 알았다. 통시적 연구가 인간의 인지능력의 구조의 일부를 해명하는 큰 과업에 한 가닥 도움이 될 수 있다는 L의 의견에 찬의를 표한다. 그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L의 방법론은 여태껏 이 방면에서 결여되었던 일종의 자극이므로 도전이다.¹⁴⁾

참 고 문 헌

- Bennett, P. (1979). 'Observations on the transparency principle'. *Linguistics* 17, 843-861.
- Carlson, A. (1978). 'A diachronic treatment of English quantifiers'. Unpublished MA thesis. *Lingua* 46, 295-328.
- Chomsky, N.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 Fischer and van der Leek. (1981). 'Optional vs radical re-analysis: mechanisms of syntactic change'. *Lingua* 55, 301-50.
- Hornstein, N. and Lightfoot (1981). *Explanation in Linguistics*. Longman
- Lass, R. (1980). *On Explaining Language Change*. Cambridge U Press.
- Lightfoot, D. (1979). *Principles of Diachronic Syntax*. CUP.
- Lightfoot, D. (1981). 'A reply to some critics'. *Lingua* 55, 351-68.
- Lightfoot, D. (1982). *The Language Lottery*. The MIT Press.
- Romaine, S. (1981). 'The transparency principle'. *Lingua* 55, 277-300.
- Ross, J. (1969). 'Auxiliaries as main verbs'. *Studies in Philosophical Linguistics, Series I*.

14) Fischer and Leek(1981:301): "...we maintain that PDS shows true methodological discernment and is therefore of great theoretical importance. The book will, we expect, give a real impetus to research in the field of syntactic change." Romaine(1981:278): "...his[L's] book must still be considered a pioneering attempt to provide us with a full-fledged and comprehensive theory of syntactic change within a particular model of grammar."